



제4부 전남의 섬, 섬사람들
여수편 - 금오도

비렁길 절경에 전국 인파 외국인도 보이네



수직 절벽 18.5km 매력...매주 수천명 몰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각종 규제 주민 불편
전국 생산량 83% '방풍' 주력산업 육성

생김새가 자라와 같다고 해서 불린 금오도는 물에서 상당히 먼 섬치고는 꽤 면적이 넓다. 27.481km²에 지난 2010년 안도대교(360m) 개통으로 안도(3.956km²)와 연결되면서 31.437km²의 큰 섬이 됐다. 돌산도(71.61km²)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크기다.

이 섬이 유명해진 것은 '비렁길' 때문이다. 태평양을 바라보며 수직으로 깎인 아찔한 절벽을 도는 18.5km의 길은 굳이 용두바위, 미역바위, 굴등전망대, 쫓대바위 등 포인트 없이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데레스 여파로 주춤하고 있지만 멀리 수도권 가까이 사는 광주에서 찾는 인파와 차량으로, 주말이면 남면여객선터미널과 함구미선착장 주변이 어느 도시의 도로같은 정체현상을 보일 정도다. 길은 좁고 택시는 2대에 불과해 차량을 끌고 섬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금오도의 남면사무소는 유인도 11곳과 무인도 46곳 등 모두 57개의 섬을 거느리고 있다. 파출소, 해경출장소, 우체국, 보건지소, 국립공원금오도분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금오도에 집중해 있다.

매주 수천명의 외국인들이 들락거리면서 섬내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섬 경관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다 분소까지 설치되면서 정착 주민들은 규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컨테이너 설치나 담 보수 등도 사전허가를 얻어야 할 정도로 제약이 심하다. 가건물이나 외국풍 건축물 등과의 부조화에 대한 대책,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비렁길에 오르다 보면 좌우 발에는 어김없이 초록색 잎들이 솟아 있다. 방풍이다. 중풍을 예방할 정도로 약효가 있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는데, 금오도를 비롯한 남면의 특산물이다. 돌산도의 '갯'이면, 금오도의 '방풍'이다. 재배면적이 130.3ha로 전국의 83.2%를 차지하고 있다. 여수시와 전남도는 앞으로 41억여원을 들여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방풍산업을 키울 방침이다.

비렁길은 두 사람이 함께 걷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고 가파르다. 남면사무소 무기계약직 주진평(37)씨는 1t 트럭에 타고 마치 '제



금오도 비렁길. 전국적으로 유명관광지로 부상하면서 평일에도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금오도와 안도를 잇는 안도대교. 지난 2010년 개통되면서 안도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 원안 사진은 금오도 명물 '방풍'.

앞마당 다니듯' 쉽게 길 여기저기를 오르내렸다. 금오도 토박이인 그는 해변대를 가고 싶었지만 고향 땅을 지키는 방위로 만족해야 했다. 섬 곳곳을 잘 알고 씩씩하기까지 해 외국인들이 오면 누구나 안내를 권할 정도다.

주씨 같은 '섬토박이' 직원들은 점차 줄고 있다고 한다. 젊은 주민이 갈수록 줄고, 공채제도 강화로 인해 섬 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섬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의 융통성을 고려할만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말이다.

1구간을 내려오는 길에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를 만났다. 나이와 이름을 묻는 취재자에게 그녀는 "죽을 때가 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할아버지를 먼저 보낸 뒤 술을 마시고 비렁길가에 앉아 있

는 것이 이 할머니의 일상이 됐다는 말을 주민에게 전해들었다. 비렁길에서 보면 조그만 수향도라는 섬이 보인다. 2명의 할머니가 거주했는데, 모두 고령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 최근 한 외국인인이 아직도 밭물을 받아써야 하는 이 섬을 10억원에 사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 주민은 전했다.

금오도를 거닐다보면 외국인도 자주 볼 수 있다. 먼 바다에 나선 어선의 중요한 경유지이기도 한 금오도는 와이파이가 돼 외국인 선원들이 여기저기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섬 사람 여수 남면사무소 명광석(57·6급) 행정선 선장
농사 짓고 민박집·식당 운영까지...
금오도 재산세 1위 '성실'의 대명사

금오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주민은 다름 아닌 남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명 선장이다. 6급 공무원이면서 1만2000평의 고사리·더덕 밭을 일구고, 민박집에 식당까지 운영하고 있는 그는 '성실'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에 나가 한전 일용직으로 일했던 그는 1980년대 중반 선배의 권유로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와 합쳤다. 25년 전인 1990년 남면사무소 행정선 기관사로 특채된 그는 7년만에 선장이 됐다. 아픈 주민 12명을 늦은 밤, 새벽 가릴 것 없이 병원에 옮겨 생명을 구해준 것이 가장 보람된 기억이다.

명 선장은 매일 오전 5시30분 밭에 나가 일하고 8시 출근하며, 6시 퇴근한 뒤 다시 8시까지 밭일을 한다. 검게 그을린 그의 몸은 근육질에 날씬하기까지 해 4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다.

아버지에게 유산 20만원을 받아 이후 10년간 3억원을 모아 아버지의 소원이었던 여관을 지었고, 이후 3년간 1억8000만원을 벌여 여관을 증축했다. 지난해 56만원의 재산세를 내면서 비로소 부자가 됐지만 그의 부지런함은 지금도 여전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休·安·林**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 로얄 스위트룸 1박 무료 제공
- 사우나 & 조식 2인 무료 제공
- 꽃길(조화) 무료 제공
- 3단계 및 축배용 와인 1병 무료 제공

빔프로젝트, 식사테이블 장식, 페백실 대여, 혼용용품 제공

일반웨딩 200명에서부터 대형웨딩 1,000명 수용 가능
대형 주차장 완비(800대 수용가능)

호텔무등파크 대표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